

젠더 이분법, 만들어진 규범을 넘어서기 위한 질문들

김한울 회원, 젠더와노동건강센터

임신한 여성인 카트리나, 여성이 된 트랜스젠더 리즈, 여성이 되기를 포기한 에임스. <디트랜지션, 베이비>에는 세 명의 여성의 등장한다. 호르몬 치료를 지속한 에임스는 의사로부터 불임이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호르몬 치료를 중단한 뒤 만난 카트리나와 아이를 갖게 된다. 카트리나는 에임스와 함께 아이를 기르고 싶지만, 에임스는 아이를 키우는 역할(아버지인지 뭔지 모를)을 수행하기 위해선 전 여자친구인 리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 리즈는 그 누구보다 엄마가 되기를 원한다. 디트랜지션 베이비는 세 인물들의 삶과 ‘임신’이라는 사건을 서로 교차하면서 서술해나간다.

“아이를 원하는 것이야말로 전 세계의 모든 여성에게 허용된 일인 것 같아요. 트랜스만 예외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트랜스에겐 상황이 달라요. 나의 생체 시계가 계속 째깍거리고 있다고 말하면, 아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에겐 애초에 생체 시계 따위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엄마들이 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너무 질투가 나요. 마치 짖주립처럼, 내 몸이 느끼는 질투심이에요. 내 곁에 아이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도 다른 엄마들처럼 엄마로 인정받고 싶어요. 가정 안에서의 여성이라는 그 느낌을 갖고 싶어요. 시스 여성들한테는 그게 자연스러운데, 내가 그걸 원한다고 하면 변태로 보잖아요. 마치 ‘드레스 입은 남자’가 아이들 옆에 있고 싶어 하는 이유는 결코 좋은 것일 리가 없다는 듯이. 다들 인정하자고요. 모두가 엄마들이야말로 진짜 여성이고 진짜 여성은 엄마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 리즈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닮아 있다

이제는 ‘트랜스젠더’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라고 믿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심지어 나조차도 트랜스젠더의 삶은 나와는 다를 것이라고, 나와 다른 무언가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여길 때가 있다. 당연하게도 모두의 삶은 다를 테고, 동시에 ‘트랜스젠더’의 고유한 경험들도 있겠지만, 일, 연애, 이별, 결혼, 질병, 임신 등 삶의 경로에서 맞닥뜨리는 사건들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감정과 욕망, 떠오르는 생각 같은 것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디트랜지션, 베이비>는 ‘임신’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트랜스와 시스 여성 간의 삶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 써 내려간다. 나아가 ‘임신’은 카트리나, 에임스, 리즈 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세 사람과 얹힌 다른 인물들도 함께 끌어들인다. 카트리나와 에임스는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였기에 두 사람의 갈등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카트리나의 아웃팅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다뤄지며, 자책하는 카트리나에게 리즈의 트랜스 친구들은 앞으로 해야 하는 일을 설명해주기도 한다. 카트리나의 엄마는 리즈와 카트리나가 아기용품을 고르면서 겪는 의견 차이에 대해 조언을 주기도 하고, 리즈는 카트리나와 임산부 요가 클래스를 함께 들으며 실연을 경험한 카트리나의 친구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한다. 성별 정체성은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것과 무관하기도 하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누구나 가까운 사람과 갈등을 겪기도 하며, 누구나 실수를 하기도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아프고, 가까운 사람과 갈등을 겪으면 힘들고, 실수를 하면 수치스럽다. 그러니깐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서로 닮고, 비슷한 것들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고, 서로에게 기대어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비슷한 시기에 넷플릭스에서 디스토피아 SF 애니메이션을 봤다. 두 개의 작품은 배경도, 언어도, 내용도 다르지만, 묘하게 닮아 있었다. 애니메이션 속에선 모두가 몸에 기계를 결합하고 살아가는데,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신체 능력을 최대치로 향상시키기 위해 점점 더 많은 기계장치를 몸에 결합한다. 그런데 인간의 몸이 기계를 무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결국 그 장치를 버티지 못한 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어느 순간부터 내겐 젠더가 하나의 장치처럼 느껴진다. 애니메이션 속 사람들이 새로운 기계를 장착하거나 기존의 것을 업그레이드하거나, 기존의 것을 떼어버리는 것처럼 현실 속 사람들은 하나의 젠더를 부착하거나, 떼어버리거나, 추가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몸에 장치를 부착했으니 당연히 몸도 그 영향을 받아 변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는 모습도 달라지겠지만, 그게 누군가의 전부는 아니다. 몸이 계속 추가되는 기계를 버텨내지 못하는 순간이 있듯이, 누군가가 존재에 대한 타인의 의심에 대해 계속해서 증명해내야 할 때, 더는 못 견디는 순간이 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 토리 피터스의 장편소설 <디트랜지션, 베이비> 책 표지 이미지. 사진 : 비채

어쩌면 젠더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

매년 11월 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이다. 도대체 젠더란 무엇일까. 시스젠더인 나에게도 젠더는 늘 어려웠다. 성적지향은 결국 젠더를 논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으니깐. 나와 같은 성을 사랑하는 동성애, 나와 다른 성을 사랑하는 이성애. 그리고 각각의 성향에 따라 이성애자와 동성애자가 나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던 여성인 예전엔 남성이었다면? 남성이 되고 싶다면? 두 가지 젠더를 함께 가지고 있다면? 남성도 여성도 아니라면? 그럼 난 무엇일까. 동성애자이면서 이성도 사랑하는 걸까, 이성애자이면서 동성도 사랑하는 걸까. 혼란스럽고 어려웠다. 혼란을 끝내기 위해 내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젠더도 하나의 장치이다’라고 여기는 것이다. 젠더는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믿는 것이다. 예컨대, ‘아무런 조건 없이, 이해 없이, 그냥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라든지,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 **일터**